

A. R. Ammons의 자연관

조 달 려*

I

자연의 궁극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견해는 생물 중심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적 자연관으로 대별된다. 생물 중심적 관점은 자연이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인간 중심적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에 의해 조직되고 사용되는 '지하 자원'의 저장소로 간주하며, 자연은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 이외의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을 O'Riordon은 생태 지향적인 것과 기술 지향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기술 지향적 사고는 16세기 이후의 과학 혁명과 합리주의의 발달에서 유래하며 이를 배경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적 태도를 선호하는 자연관'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이와는 반대로 생태 지향적 사고는 '자연과 인간의 동등성 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해 표방하는 낭만주의와 생물학적인 과학이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Pepper 29)." Worster 는 이것을 전원주의적 생태와 제국주의적 생태로 구별한다. Worster에 따르면 전원주의적 입장은 고대 및 중세의 이교도적인 전원주의와 물할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18세기에 화이트를 거쳐 소로우, 셸링, 괴테, 그리고 워즈워드의 낭만주의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이 관점은 자연 중심적 시각에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하나의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제국주의적 생태학은 기독교의 목자적 전원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성의 사용과 엄밀한 작업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리를 확립하려한데 특징이 있다(문순홍 161). 오늘날 생태계의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이나 Ammons의 자연관은 바로 인간 중심이 아닌, 생물중심의 자연관에서 출발한다. 물론 드볼과 세션으로 대표되는 근본생태학도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자연관을 공유하게 된다. 페퍼는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1984)에서 생태 지향주의적 환경론을 '존재의 사슬'과 '풍요성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는 "자연의 사슬 중 어느 하나의 고리를 부수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강사

더라도/ 열 배, 만 배의 고리가 끊어지는 충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Alexander Pope의 시구를 인용하면서 “생물계는 위계질서에 따라 조절된 규칙적인 등급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는 이 연속성과 등급화 관념을 풍요성 이론과 결합시킨다. 풍요성 이론은 “우주는 그 구성상 다양한 생물로 충만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순수한 이론적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종의 실재를 믿는 것”이다. 또한 그는 종의 다양성에 근거한 종의 실재 말고도 이론적으로 무한한 다산성을 통해 파생되는 피조물의 수적 풍요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즉 풍요성 이론은 “더 많이 수용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세계가 된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125).

이러한 이론들은 독창성과 다양성을 찬미하며 생물의 고유한 생존권을 인정하는 낭만주의의 자연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Pepper는 낭만주의를 “예술로 표현된 자연과의 합일 및 자연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야말로 고전과학이 주장하는 냉정히 계산된(비인간적인) 객관적 경험적인 지식 보다 월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39). 낭만주의 시인들은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도덕적인 치료효과도 있는 자비로운 영적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야생 자연과의 접촉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 영적인 것에 이르게 해주는 영감을 주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145).”

Emerson이나 Thoreau같은 미국의 낭만적 초절주의자들도 바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Emerson은 “Nature”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동물, 산, 나무, 하늘 등의 원시적 형태를 모든 사물의 근본으로 본다. 즉 그는 “자연은 인간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것(*Nature*, in the common sense, refers to essences unchanged by man; space, the air, the river, the leaf)(Bode 8).” 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연을 말할 때, 우리는 다양한 자연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상의 통합을 의미한다(10)”고 말함으로써 다양한 자연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Thoreau도 자연이 인간의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의 존경과 숭배를 받을 만한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대표작 *Walden*에 대해서 Charles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월든』을 그 훌륭한 자연 묘사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책의 첫째가는 가치는 자연애호가들에게 전원의 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 확실히 그 책 속에는 짐승, 새, 물고기, 꽃, 풀, 나무, 바람과 하늘, 별과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들어있다(녹색평론 153 재인용).” 분명 Thoreau는 자연의 다양성과 그 각각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Ammons는 이러한 낭만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David I. Grossvogel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학적 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보다 더 젊었을 때 나는 인도와 중국철학에 관해 많이 읽었다.... 그것은 나의 철학적 근원이다.... 에머슨도 내가 그들로부터 파생된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동양 전통의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 같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나의 선조들은 휘트만과 에머슨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나의 근원은 그들의 것과 같다.(Diacritics 51)

이처럼 Ammons의 생각은 Emerson과 Whitman뿐만 아니라 Thoreau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들은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그의 시는 자연적 세부사항에 대한 생태학적 관심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그가 낭만주의 시인들과 다른 점은 D. Reiman이 지적하고 있듯이 “근본적인 철학적 지향 즉, 가치의 토대가 영감의 덧없는 초자연적 근원이나 고도의 상상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Shelly가 말하는 ‘사물들의 영원한 보편성(the everlasting universe of things)’ 즉, 자연의 과정에 대한 비 자기 의식적 지향에 있는 것이다.(22)” 자연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인간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관점은 기껏해야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One속에 기꺼이 몰입시킴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의 시들은 개별적인 것들의 독특함과 자연의 과정을 균등화하고 통합하려는 불가피한 힘 사이의 긴장을 유지한다. 모든 창조물들이 자연의 경제 안에서 자신의 정체와 가치를 조화시키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생태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II

다양한 생물들로 구성된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과학은 자연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도 제공해 줄 수 있다. 과학을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지배와 착취’의 관계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과 자연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도 있다. Ammons는 생물 중심적 관점에서 과학을 이용하여 자연에 접근한다. 그는 특별한 관심으로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생태계의 구조까지도 파악한다. 그러한 관찰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연은 단순히 눈에 비치는 현상 이상의 어떤 것이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는 “Bees stopped”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에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미들은 바위 위에 평평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회고 푸르고 붉은 식물들 위를 달린다.

ants ran over the whitish greenish reddish
plants that grow flat on rocks
and people never see

사람들이 아무 것도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메마른 바위 위에 뿐만 아니라 마른 골풀 밑이나 마른 풀숲 주위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명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자연을 관념적인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Pieces of My Voice”에서도 관념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물 자체를 보아야함을 말한다.

바람이 산으로부터 불어올 때
도마뱀에게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어보고
방울뱀은 변화하는 모래에서
솟아오르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나는 모든 조각들을 주워 모아서
전적인 침묵을 만들어야 한다.

when the wind falls from the mountain
inquire of the chuckwalla what he saw go by
and what he sidewinder found
risen in the changing sand
I must run down all the pieces
and build the whole silence back

말은 사물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낼 수 없다. 말로 사물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을 조각 낼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은 침묵이다. 자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인간 언어의 어려움은 “Expressions of Sea Level”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변함없는 것을 이름짓기는 힘들다: 낱말이 없는 언어, 침묵이 그것을 표현한다(it is hard to name/ the changeless : speech without words, silence renders it).” 그러나 자연의 표현을 언어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인간과 세계가 만나는 즉, 자연과 정신이 만나는 좁은 영역에서 그것을 읽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단지 안정된 육지와 함께/ 바다는 진정으로 대화를 유지할 수 있고/ 바위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만/ 단단한 관계가 빛으로 풀어진다:” 이처럼 형체와 형체가 없음이 만나는 곳에서만 인간은 자연을 배울 수 있다.

자연의 딱딱한 표면은 인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며 다양한 존재

들로 가득 차있다. 각 존재들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dentity”에서 시인은 거미줄을 보면 그것은 어느 종의 거미줄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존재의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다. 거미줄을 칠 수 있는 장소는 무한하다. 만약 거미줄을 칠 장소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거미는 줄을 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결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미줄이 없이 달라질 수 있다면 거미줄의 특성을 상실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특정한 장소에 거미줄을 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Still”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당당하고 영광으로 넘쳐흐르고 있음을 말한다. 시인은 자신의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보다 초라한 어떤 것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존재로서 당당하고
영광으로 넘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감소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어느 것도 감소되어 온 것이 없다.

.....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우주 속에서
비천한 것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다.

everything is

magnificent with existence, is in
surfeit of glory:
nothing is diminished,
nothing has been diminished for me:

.....
though I have looked everywhere
I can find nothing lowly
in the universe:

마침내 이끼, 거지, 잡초, 진드기, 소나무 등 모든 것이 아 존재로서 당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순간이 정지점(still point)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존중해야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성으로 풍부한 Ammons의 자연은 다양한 사건들로 가득 차있다. 한 인터뷰에서 Ammons는 “완성된 시가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시의 창조도 또한 하나의 사건이다(Jackson 32).”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사건에 흥미를 가지는 것

은 그 사건들이 너무나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해변의 모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너무나 여러 방향으로 날지만 하나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제비 떼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다양성의 결과는 한 '사건'이 주어진 정신적 형태, 관습적 사고, 어떤 종류의 협소함, 특별한 관점의 진실에 대한 아집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힘과 예기치 못함을 가지는 사건은 너무나 협소한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풍부한 재료들이다. ... 나는 다양성 속에서 보다 더 큰 힘 속으로 용해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사건에 감사한다(33).

풍부한 사건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움직임을 가진다.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연적 질서가 존재한다. 그의 시적 관심은 정해져 있는 질서와 규제를 벗어나 다양한 많은 것들이 서로 작용하여 자연스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러한 질서는 스스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One:Many"에서 하나와 많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부과를 피하라고 한다.

너무 큰 일관성을 두려워하라,
추상적인 하나로부터
아래로 많음의 실재들로 향하는
자의적인 부과를:
이것은 많음의 균형으로부터 끌어낸 것이 아닌
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에 이용할 수 없는,
다양성의
재질서화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된 통일성이다.

fear a too great consistency, an arbitrary
imposition
from the abstract one
downwardly into the realities of manyness:
this makes unity
not deriving from the balance of manyness
but by destruction of diversity:
it is unity
unavailable to change,
cut off from the reordering possibilities of

variety:

다양성은 균형을 의미한다. 이 점은 생태 지향주의자들이 현대 경제정책의 많은 양상들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현대의 경제정책은 단순한 동일 경제체제인데, 생태학의 법칙에 따라 이러한 획일성은 결국 균형이 아닌 불안정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자연계의 균형이 결코 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인의 희망은 자신의 정체를 주장하거나 보존하는데 있지 않으며 또한 미래 문명에 의해 파괴되거나 시간의 침식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돌 기념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을 “In the Wind My Rescue Is”에서 분명히 한다. 자신의 구원은 계속해서 자연을 변형시키고 물을 휘젓는 자연적 변화의 힘, 과정으로서의 바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지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신의 시적 에너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Corson’s Inlet”에서 볼 수 있다. 그의 자연에 대한 상세한 관찰 속에는 생물학적 적자생존의 관계나 지질학적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인은 인간을 죄고 있는 형식들로부터 벗어나 바다와 육지가 만나고 하나와 많음이 서로 합쳐지는 해변가를 따라 산책한다. 이것은 Thoreau가 숲과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원시림이 세상의 보고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경험이다. 산책은 “생각의 다발(binds of thought)”로부터 시인을 자유롭게 해주며 동시에 “모든 것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 있다(Over is beyond me)”는 신념을 갖게 해준다. 그리하여 비록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변화하는 것(the becoming)”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풍부한 하나의 집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지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a congregation/ rich with entropy: nevertheless, separable, noticeable as one event, / not chaos)” 이처럼 그의 자연 질서는 개별적 자유가 최대로 보장된 질서이며 그것은 언제나 변화를 겪고 있다. 자연의 변화는 뚜렷한 경계선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 속에는 지질학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변화로 인해서 육지는 풀 덮인 모래톱에서 강으로 그리고 강바닥으로 내려앉는다 (by transitions the land falls from grassy dunes to creek to undercreek: but there are no lines).”

Ammons가 관찰한 자연 속에는 폭력적인 상태도 포함된다. 그 폭력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투쟁이며 자연스런 질서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진다.

한 어린 얼룩무늬 갈매기는 얇은 여울에 자유로이 서서

먹고

벨아낸다: 또 다른 갈매기는 소유를 외치면서, 계를 갈라서,
내용물을 쪼아내고,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다리를 삼키고, 한 붉은
작은 물떼새는 남은 조각을 낚아채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

위험이 가득하다: 모든 생명체는
포위되어 있다: 요구하는 것은 삶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a young mottled gull stood free on the shoals
and ate
to vomiting: another gull, squawking possession, cracked a crab,
picked out the entrails, swallowed the soft-shelled legs, a ruddy
turnstone running in to snatch leftover bits:

risk is full: every living thing in
siege: the demand is life, to keep life:

모든 생명체들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다윈의 설명을 보는 듯 하다. 다윈
은 “자연의 웅대한 규모 속에서 희미하게 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식물과 동물은
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생물에 대한 기생자 관계, 즉 한 생물체에 대한 다른 생물체의 의존 관계
는, 자연 이라는 웅대한 규모에서 보면 먼 관계에 있는 생물체들 사이에 분명
히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생물체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수단
에 의해, 그 생물체가 도망을 가지 못하면 먹히게 되는 그리고 식량과 서식지
를 다투어야만 하는 모든 다른 생물체들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다(Pepper
181 재인용).

작은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한 생명체는 먹이 사슬에 따라 먹힘으로서 보다 큰
질서에 편입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는 공포는 없다(no arranged
terror)”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적 질서인 것이다. 그
는 “The Quince Bush”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벌 알에 의해 찢린
썩기 벌레는 내부에서 부드러운 애벌레로
피어나게 한다:

: the caterpillar pierced
by a wasp egg blooms inside with
the tender worm:

말벌은 알을 낳아 새끼로 부화시키고자 할 때 썩기를 마취시켜 그 속에 알을 넣어 부화시킨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인 과정은 생물학적인 세심한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III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mmons의 자연 관찰은 생태학적인 것이다. 시인 자신이 자신의 언어는 생태학이라고 했듯이 그의 시적 관심은 주로 자연이다. 인간 사회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생활상은 거의 없다. 그에게 있어 과학적으로 보는 세계와 문학적으로 보는 세계는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시각은 단순한 인간 중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시각이다. 그는 돌맹이 하나를 관찰할 때도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생각한다. 보기에는 무질서가 난무하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며, 가장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모난 것(The Misfit)도 전체를 위해서는 중시 여겨져야 된다. 모든 존재들은 다 형제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자연에 가하는 인간의 파괴가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Ammons의 시에서 읽을 수 있는 그의 메시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자연에 대한 지배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Works cited

- 문순홍.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서울: 나라사랑, 1993.
- Ammons, A. R. *The Selected Poem 1951-1977*.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7.
- Bode, Carl, ed. *The Portable Emerson*. New York: Penguin Books, 1981.
- Jackson, Richard. *Acts of Mind*. Alabama: The Univ. of Alabama Press, 1983.
- Devall, Bill and Session G. *Deep Ecology*. Salt Lake: Gibbs M. Smith, 1985.
- Lewis, Philip E. ed. *Diacritics* No. 3 (Winter 1973).
- Pepper, David.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London, 1984; 이명우 외 역, *현대환경론*, 서울: 한길사, 1989.

- Reiman, Donald H. "A. R. Ammons: Ecological Naturalism and the Romantic Tradition i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31 no. 1 spring. 1985.
- Waggoner, Hyatt H. *American Visionary Poetr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82.



■ Abstract

A.R. Ammons' View of Nature

Cho, Dal-Rye

As Ammons himself writes, "ecology is my language," he can be called an ecological naturalist. In poetry his major concern is man's environment, that is, ecology in the conventional sense. He is not interested in describing the aspects of human life in the human society.

His central issue of poetry is that Man is one among many creatures. All his self-consciousness, imagination, and creativity have no power to hold back the force of time and change. He views nature as a vast network of interdependence and of separate designs that still permit the possibility of change.

He belongs in the company of 'naturalists' poets such as Wordsworth, Emerson and Whitman. Like them, he sought for order and meaning where there is apparently only disorder and no meaning; he sought for the lasting in the universal decay, for the sacred in the secular. Therefore the misfit has an important meaning even if it looks disorder. For example, "Corson's Inlet", one of his finest poems, is typical of his nature poetry. It tells us what he saw on a morning's walk along the shore, where sea and land, the one and many, merged and possibilities of seeing a wider order teased him.

What Ammons does find universal is motion. Motion is the one thing man can depend upon finding in the world as he looks for a focus and measure of experience. It finally realizes one stable point of being 'still point.' However this point is not permanent. It is man's mental construct.

Ammons emphasizes the brotherhood of all creatures. Therefore man must protect and take good care of nature instead of destroying it. When man realizes that to destroy the environment in which he lives is to destroy himself, he can live in harmony with it. It is the message the poet tells us in his poetry.

